

與 새지도부 ‘민생정책’ 순항할까

당내외 포퓰리즘 논란…이견 조율 필요

등록금·감세 등 당정 이견 해소도 난제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 탄생을 계기로 서민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 내외에 포퓰리즘 논란이 식지 않고 있어 당 내외 이견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흥준표 당 대표와 4명의 최고위원은 서민정책을 강화하자는 촌문에는 이견이 없지만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법인세 감세 철회 등 각론으로 들어가며 상당한 시작차를 드러내고 있다. 당시 서민정책을 주도하면서 빚어진 정부와의 견해차를 헤치는 것도 난제로 꼽힌다.

◇당내 이견조율 필요=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경선기간에 ▲대학등록금 인하 ▲대부업체 이자율 제한

▲무상급식 단계적 도입 등 다양한 서민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충분한 갈등을 뿐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차이가 상당하다.

때문에 우선 당 지도부의 이견부터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단은 오는 1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석 회의를 갖고 서민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끝장 토론’을 벌인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6일 “최고위원·정책위의장단 워크숍에서 당시 추진해온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정책위에서 준비하는 정책을 보고하고 최고위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흥 대표와 최고위원들,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자리를 함께 한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부의장단도 참석한다. 지난 달 23일 당시 내년부터 1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을 때도 기획재정부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법인세 추가 감세도 당내에선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재정당국은 감세 기조 유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서민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겠다는 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책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불만소리도 원내 지도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당정 이견 해소도 문제=그동안 복지정책과 관련, 이견을 보여온 정부와의 거리 좁히기도 난제다. 지난 달 23일 당시 내년부터 1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을 때도 기획재정부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법인세 추가 감세도 당내에선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재정당국은 감세 기조 유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도 당과 정부는 협력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정부와 문제는 결국 청와대와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흥 대표와 청와대와 소통구조를 갖지 않고는 의욕만 있을 뿐 실제 정책시행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4선 이상 중진의원들

“친서민-포퓰리즘 구분해야”

한나라당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신임 흥준표 대표에 ‘우파 포퓰리즘’ 발언과 관련,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흥 대표가 경선 전부터 강력한 서민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형성된 기류였다.

흥 대표는 6일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국가재정을 파탄시킬 위험성이 있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친서민적인 인기영합 정책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정치”이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 포퓰리즘(인기영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흥 대표가 지난 2005년 혁신위원장으로서 현재의 정강정책을 만든 분으로, 우리 한나라당 당헌에 경선 원칙의 전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새로운 한나라당은 집단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맞서 현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재도약 시키겠다’고 나와 있다”고 지

적했다.

흥 대표는 이에 “반박은 안 하겠다”며 쓴웃음을 지었으나 중진들의 공세는 계속됐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모든 입법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그 입법 취지에 입각해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에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며 흥 대표의 ‘우파 포퓰리즘’ 발언을 비판했다.

이경재 의원도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클릭을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좋은 포퓰리즘, 나쁜 포퓰리즘을 가를 수는 있으나 훈훈한 시킬 수 있으니 당헌·당규에 나온 대로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이고 친서민 정책은 친서민 정책대로 분명해야 한다”고 박枳했다.

이에 흥 대표는 “포퓰리즘 얘기를 자꾸 말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한나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좌클리 포퓰리즘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국 중서부 지역 경제개발의 요충지 충칭(重慶)을 방문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오후 양강신구 전시관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민주당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30% 이하로 줄이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하는 한편 최저임금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 이상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위원회 과행 사태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결정을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200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통을 고려해 하루빨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선 장영달 전의원 “경남서 출마”

호남 4선 민주당 장영달 전 의원이 6일 “호남 정치를 마감하고 경남에서 새로운 정치활동을 시작하겠다”며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남 함안·합천·의령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진보계세력이 영남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버지의 고향인 전라도와 어머니의 고향인 경상도가 반드시 하나로 손쉽게 해 빛나는 대

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합안·합천·의령을 정권교체를 위한 진보세력의 새로운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남 함안·합천·의령의 현역의원은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이다.

이에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선 의원을 지낸 진진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큰 호남 지역구를 뒤로하고 민주당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영남지역 출마를 결정한 장영달 전 의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에 주거·비정규직 포함

민주 ‘3+3복지’로 차별화 시도

총구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대권 주자로서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 실적 위주로 무리해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실·조작 의혹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이 더이상 오세훈 대권 놀음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주민 열람을 통해 지난 5일 하루에만 4천여 건의 서명 조작을 적발, 이의 신청을 내는 등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맹공하는 등 대여전 선 구축에 힘을 쏟았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에 접수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의 상당수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청구 철회 및 오 시장의 사과를



중국 중서부 지역 경제개발의 요충지 충칭(重慶)을 방문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오후 양강신구 전시관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대표,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 만나

“한·중 경협 확대 매우 중요”

방중 사흘째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6일 중국 중서부 지역 경제개발의 요충지인 충칭(重慶)을 방문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충칭시 삼성전시관과 양강신구를 차례로 시찰한 뒤 중국 내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서기를 면담했다. 7일에는 일제 치하 중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소재지였던 충칭 임정청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첫 이틀간 베이징(北京) 일정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

부하는 자리였다면, 충칭은 한·중 경제협력의 강화가 민생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보시라이 서기와 만나 중국이 민생을 보호하고 복지를 강화하면서도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다. 또 소규모 개방 경제인 대한민국은 교역액 1위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한국민의 민생문제 해결과도 직결돼 있어 한중 경제 협력의 확대와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의원 시절이던 2001년 국회 한중포럼을 만들어 중국의 서부 대개발지구를 직접 방문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네 차례 중국 방문단을 접촉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손 대표와의 면담에서 서부개발지구 방문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하면 베이징과 상하이 만 들렀다. 그래서는 중국 전체를 깊이 이해할 수 없다. 전략적 안목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03년 보시라이 당시 라오닝성장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4차례 만남을 갖는 등 개인적 인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장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훈 1-602-2532

(광주은행 신문집광주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산월IC 교통광장 접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기 광고효과 최고!!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독원 부지 매매

- ▶ 임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복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 대 지 : 250평(30×8코너)
- ▶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 금 매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복구 동립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 8.9, 10.9m
- ▶ 호이스트 : 유, 유, 유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 전북 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 지 : 10980㎡, 임야 : 13937㎡
케모미일 23평형 37개동, 케모미일 10평형 17개동 관리동, 각각 독채형
식 주차장임비, 수리한경비, 수리원, 기도원, 저도원, 여유대지임금, 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 2억9천만원포함) • 실투자금 : 11억1천

모델매도

-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율산리 · 대지 : 1038㎡, 건물 10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4㎡ 일련번호/기본설계/설계인증/기본설계인증
2012 여수세계박람회 속박입 지정업체
• 매매가 : 10억(근저당 3억6천만원포함)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매매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일랜리움 흑암면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유통, 릴레, 접포형 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원

토지매매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유통, 릴레, 접포형 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원

과수원매매

- 전라남도 광양군 목사동면 신전리
• 전,답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